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전 세계의 기업 가운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AGF Investments 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34억 원

-모투자신탁 268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100% 이하
-모투자신탁의 주식편입비 : 7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A : 2007년 01월 15일
- 클래스 A-E : 2016년 09월 01일
- 클래스 C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20일
- 클래스 C-F : 2017년 07월 10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10월 26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9년 07월 25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9년 04월 17일
- 클래스 C-W : 2007년 03월 15일
- 클래스 C2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C3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C5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 클래스 S-P2 : 2016년 07월 06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95% +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해지 비중 89.6%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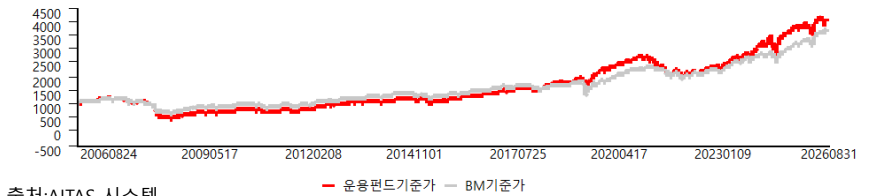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95%	-2.80%	2.29%	9.49%	37.29%	67.44%	45.00%	297.76%
클래스 A	2.78%	-3.30%	1.27%	7.32%	32.03%	57.91%	31.30%	146.46%
클래스 A-E	2.83%	-3.16%	1.55%	7.91%	33.45%	60.45%	34.91%	196.69%
클래스 C	2.75%	-3.40%	1.07%	6.90%	30.98%	56.01%	28.73%	141.23%
클래스 C-E	2.81%	-3.21%	1.45%	7.70%	32.93%	59.52%	33.58%	226.74%
클래스 C-F	2.87%	-3.03%	1.81%	8.47%	34.82%	62.94%	38.44%	179.13%
클래스 C-P(퇴직연금)	2.81%	-3.22%	1.42%	7.64%	32.80%	59.30%	33.26%	111.11%
클래스 C-P(퇴직연금)E	2.84%	-3.12%	1.62%	8.07%	33.83%	61.15%	35.91%	150.06%
클래스 C-P2(연금저축)	2.81%	-3.22%	1.44%	7.68%	32.88%	59.44%	33.46%	95.52%
클래스 C-P2(연금저축)E	2.84%	-3.12%	1.63%	8.08%	33.86%	61.21%	35.98%	111.73%
클래스 C-W	2.88%	-3.02%	1.83%	8.50%	34.87%	63.03%	38.62%	53.81%
클래스 C2	2.76%	-3.37%	1.12%	7.01%	-	-	-	27.25%
클래스 C3	2.77%	-3.35%	1.17%	-	-	-	-	4.37%
클래스 C5	2.78%	-3.30%	1.27%	7.32%	32.03%	57.91%	31.30%	271.28%
클래스 S	2.85%	-3.11%	1.65%	8.13%	33.97%	61.40%	36.25%	224.71%
클래스 S-P2	2.86%	-3.08%	1.71%	8.25%	34.28%	61.96%	37.06%	226.85%
벤치마크	3.59%	2.37%	8.92%	20.06%	37.28%	63.46%	58.74%	265.6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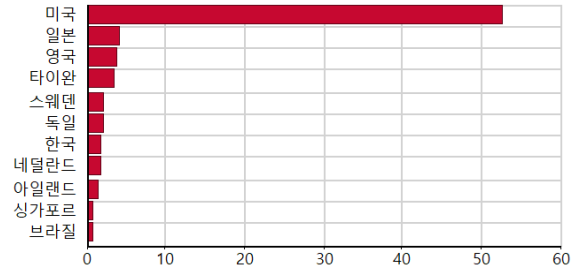


출처: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8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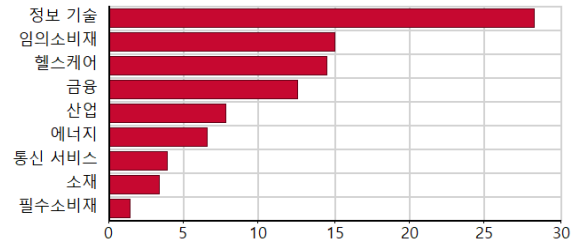
<국가별>

순위	국가명	비중(%)
1	미국	52.8
2	일본	4.2
3	영국	3.9
4	타이완	3.7
5	스웨덴	2.3
6	독일	2.1
7	한국	1.7
8	네덜란드	1.7
9	아일랜드	1.6
10	싱가포르	1.0
11	브라질	0.9



<주식 업종별>

순위	업종명	비중(%)
1	정보 기술	28.4
2	임의소비재	15.0
3	헬스케어	14.6
4	금융	12.6
5	산업	7.9
6	에너지	6.6
7	통신 서비스	4.0
8	소재	3.5
9	필수소비재	1.5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8월말 기준, 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비중(%)
NVIDIA Corp	5.8
Eli Lilly & Co	5.5
Amazon.com Inc	4.7
Microsoft Corp	4.5
Alphabet Inc	4.0
Johnson & Johnson	3.7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3.5
Lam Research Corp	3.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3.1
TechnipFMC PLC	3.0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2.01%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1.46% (판매 0.55%)
- 클래스 C : 총 연 2.41%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66% (판매 0.75%)
- 클래스 C-F : 총 연 0.94%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 (판매 0%)
- 클래스 C2 : 총 연 2.31% (판매 1.4%)
- 클래스 C3 : 총 연 2.21% (판매 1.3%)
- 클래스 C5 : 총 연 2.01% (판매 1.1%)
- 클래스 S : 총 연 1.26%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1.14%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5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6% 이내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AI 관련 기대가 투자심리를 지지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채권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월 후반 상승폭이 제한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AI 관련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특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투자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AI 투자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과 소비 둔화 조짐, 월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 소재 및 산업재 업종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월 후반 유가 및 채권금리 상승과 ECB의 매ाप적 기조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싱가포르와 호주도 각각 견조한 경제성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부진한 기업 실적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위축, 주식 공급 확대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었으며, 홍콩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캐나다 증시는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소재 및 에너지 업종의 강세와 양호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펀드는 종목 선택 효과가 부진하였고, 업종 배분 효과가 일부 이를 상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가 소비재와 IT 업종이 주로 종목선택의 영향으로 성과에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산업재와 소재 업종도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금융과 에너지 업종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성과에 가장 부정적,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페루, 스웨덴, 프랑스, 영국, 스위스는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기업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장기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향후 투자 기회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 클라우드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혁신과 일부 금융업종 등 구조적 성장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견조한 수요를 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경로와 높은 채권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기업 이익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본투자와 높아진 시장 기대를 고려하여 재무 건전성과 이익 가시성, 밸류에이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펀드는 구조적 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업종 및 국가별 분산을 통해 특정 시장 주도주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량 기업 중심의 선별적인 종목 선택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